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탐색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윤 희 수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탐색

권 경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윤 희 수

인 준 서

윤희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상황은 어떠한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근무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 참여자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0명의 보육교사로, 모두 2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가진 담임교사이다. 연구기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저널 쓰기를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2~3회씩, 1회 60분 정도씩 이루어졌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개별 면담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저널은 분량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e-메일로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녹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를 전사하여 기록된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는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사회적 인식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근무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뛰든지 해내야 하는 만능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인원, 가혹한 평가

인증과 지도점검, 업무 대비 낮은 보수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청소, 식사준비, 차량지도, 평가를 위한 서류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그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보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한 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영유아의 인원이 많다보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으며 평가인증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도점검 또한 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동료교사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로 분류되었다.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경력교사와 중간자 역할로서의 희생과 갈등, 서로 다른 교육방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원장과의 관계에서는 교사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교사의 실수를 교사의 탓으로 돌릴 때, 원장이 가진 교육철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한 학부모, 전염병과 상처에 예민한 학부모, 교사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 학부모, SNS로 교사의 험담을 하는 학부모,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를 낮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자존감 하락, 훈육과 학대의 불확실한 경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본 결과, 약 복용을 통한 해소,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 취미생활하기, 숙면 취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의 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약 복용을 통한 해소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스트레스를 단 시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7
1. 보육교사	7
1) 보육교사의 역할	7
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10
2. 스트레스	15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중요성	15
2)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17
3)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18
4) 스트레스 대처방식	21
III. 연구방법	25
1. 연구 참여자	25
2. 연구절차	30
3. 자료수집	31

4. 자료 분석 및 해석	33
IV. 연구결과 및 해석	35
1. 보육교사가 근무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36
1)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36
(1) 뭐든지 해내야 하는 만능교사	36
(2)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인원	37
(3) 가혹한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39
(4) 업무 대비 낮은 보수	43
2)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46
(1)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46
(2) 원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51
(3)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57
3)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70
(1)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70
(2)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비춰지는 보육교사	72
(3) CCTV로 무너진 교사들의 자존심	74
(4) 훈육과 학대의 불확실한 경계점	76
2.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79
1) 약 복용을 통한 해소	79
2)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	81
3) 취미생활, 혼자만의 시간 갖기	82
4)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로 해소	84
5) 하루를 기록하고 나의 감정 되돌아보기	86

V. 논의 및 결론 88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산업화와 교육의 평등한 기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켜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4)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73.3%, 62.2%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출산율 하락원인으로도 이어져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여성들의 역할이었던 자녀양육은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이관되어 기관에서의 보육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전국의 보육기관은 43,742개소이며,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1,496,671명이고, 보육교사의 수는 311,817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육통계자료, 2014). 2004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보육기관은 26,903개소,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930,252명, 보육교사의 수는 125,147명으로 10년 사이에 2~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보육기관의 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 보육교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와 영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유아기의 중요성과 발달과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교육 방식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

유아의 기본생활, 의사소통, 신체발달, 예술경험, 사회관계, 자연탐구 영역 등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과 안전과 건강의 심신을 보호해주고, 보육프로그램의 집행자로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장미순, 2012).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적환경이므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면 아동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윤혜미, 권혜영, 2003). 이처럼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은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 그보다 더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높은 업무강도와 이에 비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 또한 낮아 보육교사가 스스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홍석영, 2012).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무량이 과중하고 근무정도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가인증이나 서류작성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행숙(2012)은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육환경 구성 및 진행의 어려움, 보육 외 업무에 장시간 투자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희박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근무환경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선영(2013)은 보육교사들의 제일 큰 스트레스 요인이 과다한 업무라고 이야기 하며, 평가인증을 준비하거나 재인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이 외에 국성자(2011), 김보들맘, 신혜영(2000), 김현주(2012)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미숙(2015)의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부모의 사소한 의심과 교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직 의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때는 개인 지각 체계의 반응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동기나 의욕을 약화시키며 사기저하로 이어져 업무의 질적, 양적인 수행력의 저하, 활력의 상실, 직무에 대한 책임감 상실, 이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임진숙, 2004). 이와 같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는 보육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기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처행동을 한다(김정희, 1987). 이러한 대처행동은 사람과 환경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동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직면한 문제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 고통의 점차적인 감소, 문제해결, 현실 검증, 복귀의 과정이며, 심리적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이다(박정자, 2012). 대처방식이 많은 경우와 감정을 잘 조절하여 대처할수록 현실에 적절히 반응하며 적응도 순조롭게 된다. 이처럼 스트레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윤주(2005)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원아관련 요인, 업무관련 요인, 행정적 지원 요인, 학부모관련 요인, 경제적 대우 및 복지관련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교사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과 환경적 조건의 변화 및 노력을 하려는 문

제 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신경주(2010)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경제적 안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임무와 책임에 비해 적은 보수와 결혼 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대처방식은 적극적이며 문제해결중심으로 대처하는 통제방법을 사용했다.

김영희(2013)은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과의 활동 관련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다고 하며, 신경주의 연구와 동일하게 통제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이진미(2014), 채진영(2013), 이병혜(2015)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계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경험하는지, 그에 따른 대처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경험하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교사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위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근무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3. 연구자

연구자는 학창시절 어린 아이들을 좋아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봉사활동, 저소득층 아동 멘토링 등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해왔다. 대학교 진학 시 학과선택의 고민 없이 아동학대에 진학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어린이집에 취업해 5년간 현장에서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초임시절에는 일반적으로 겪는 학부모 상담, 동료들과의 관계형성, 유아의 문제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동료교사들과 원장님의 조언, 관련 연수를 접하며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고, 경력이 쌓이며 초임시절에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경력교사가 되면 보육교사로서의 생활이 마냥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평소 워낙 예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는 행동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나에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커다란 고민이었다. 하지만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감정을 눌러 답았었다. 또한 원 내 인간관계 외에도 끊임없이 이슈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교사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진심을 몰라주는 학부모, 이해할 수 없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이었다.

평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나는 그나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에게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교사에게 하소연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몇 년간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토록 바라왔던 유아교사를 선택한 후회감과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유아의 발달과 지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느꼈으며,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의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짐을 통해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 연구의 자료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교사

1) 보육교사의 역할

2011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 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은 단순한 영유아의 보호의 개념을 넘어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과 집단생활에서의 사회성, 인지능력 등 전인적 발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기능을 요구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역할이란 사회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포괄적인 행동 양식으로 신분적 지위, 지위와 관련된 행동의 유형, 기대되는 직업적 활동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즉, 한 제도 내의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에 요구하는 규범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박은혜, 2009).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각과 행동, 태도를 의미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의 방향이나 성과를 결정한다.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며 교수학습 과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

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지적인 발달뿐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끈다. 따라서 교사는 훌륭한 개인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끊임없는 자기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위영희 외, 2008).

보육의 질과 보육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및 능력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결국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이나 재교육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 내용이 되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기순신, 2001). 또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보육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아동이며, 아동과 장시간 동안 생활하는 종사자는 보육교사이다. 보육교사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아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서 개별적인 보육을 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보육활동인 수유, 기저귀 갈기 등과 같이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교육을 위해 매일 프로그램과 유아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 선정을 도우며, 지역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얻는 역할도 해야 한다(이상혁, 2000).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주요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9; 윤애희, 2003).

첫째,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 양육하며 영유아가 일상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자질을 몸에 익혀서 자율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조직, 분석, 평가하며 학습 환경 및

활동을 지도 평가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 및 흥미와 적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육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간혹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을 발견함으로써 부모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유아와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부모가 신뢰감을 가지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조혜경 외(2008)가 제시한 보육교사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대행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상호작용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수자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역할은 양육대행자 역할, 교수자 역할, 상호작용자 역할, 부모·지역사회와의 교류자 역할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역할은 보호자의 역할에서 교수자의 역할로 변화되어 가며,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보육과 교육의 효과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갖는 가치관, 인생관은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교사의 자질이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특성 및 교직적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및 신체적인 개인의 특성과 내면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교사는 부여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인간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할 것이 요망된다.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탁월성, 연구성, 봉사성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영유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발달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박종열, 1987).

이처럼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졌으며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근무환경은 보수 이외의 근무조건과 업무수행, 각종시설, 휴식시간, 휴일 등을 말하며, 근무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물질적 환경을 총칭하는 것이다(박은정, 2003). 즉 효과나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직업에 알맞은 근무 환경의 정비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육교사의 직무부담이 과중함으로 인하여 보육활동의 효과 및 능률을 저하시킨다. 또한 보육교사가 충분한 연구와 수양을 하지 못하면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며, 보육교사의 과중한 근무환경은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형근혜, 2006).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들의 휴식공간이 별도로 제공되는 곳은 드물고, 교무실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은 곳도 많으며, 교사용 책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은 영유아용 의자에서 생활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장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로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급에서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사들이 따로 휴식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박세은, 2011).

김현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조건이나 낮은 급여,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이 보육교사의 근무안정성을 저해하며 유능한 보육인력의 신규진입을 억제 및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협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서근복(2009)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의 낮은 보수와 장시간의 근무시간이 업무수행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보육교사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이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직업에 대한 의욕부진으로 연결되어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 운영시간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금요일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 운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7: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해당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보육 운영시간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손주리(2014)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9.88시간으로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횟수는 평균 주 2회 정도로 의외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교사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원경(2015)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근무시간이 평균 9시간 38분

이고, 주 근무시간은 평균 48시간으로, 이는 학부모의 연장보육 요구와 어린이 집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비춰보면 주 40시간보다 8시간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서의석(2006), 박삼섭(2007)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정규근무시간과 기타 근무내역과 합하면 추산되는 근무시간이 일일 평균 약 11시간이었고, 최대 14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결과로 보여주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다.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영유아 비율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수가 적절하면 교사는 모든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고,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할 때 통제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개별 영유아의 발달 특징에 맞추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연령에 맞게 적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영유아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 표1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선진국의 보육기관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실제로 정부에서 정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스웨덴은 2세 미만아 3:1, 2세아 4:1, 3~4세아 8:1, 보육교사는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되 뉴욕 주의 경우 3개월~16개월 3:1, 17개월~27개월 4:1, 28개월~42개월 5:1, 43개월~5세 8:1로

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무자격자도 가능하다. 영국은 2세미만아 3:1, 2세아 4:1, 3~4세아 8:1이며 보육교사의 절반이상은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프랑스는 보행불가능아동 5:1, 보행가능아동 8:1, 보육교사의 절반이상은 보모 또는 준보모의 자격자이다(지성철, 2008).

보육교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김영순(2014)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91.8%가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의석(2006)의 연구에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연령의 아동비율 적합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만2세 미만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만 3~5세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동비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도 교사들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만족을 하거나, 불만족을 느낀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형근혜(2006)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정해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와 긴밀한 협동을 통하여 장학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보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생활유지의 수단이다. 보육교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봉’이란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 하는 기준을 말하며,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받을 수 있다(보육사업안내, 2015).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보육교사의 보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미정, 강란혜(2011)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호봉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호봉체계에 차이가 있어 보육교사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금체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67.8%로 미지급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린이집 교사는 낮은 급여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음을 지적하며,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체외하는 보수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김상희(2014)의 연구에서도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수에 관련한 부분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로서 제일 바라는 것은 처우개선이며 교육이외의 잡무를 줄이고 적절한 보수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직무만족도 저하,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는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개인마다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학문적 관점에 따라 스트레스를 보는 시각과 초점이 다르게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 스트링게르(Stringer)로서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으로 유래되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14세기에는 고뇌, 억압, 곤란, 역경 등의 심리정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19세기에는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 압력 등의 강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기술과학에 관련된 공업적 의미로 사용되어져 오다가 비로소 20세기에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등 시대에 따라 개념을 달리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반영란, 1999)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경험에 의해 부신피질 호르몬 및 카테콜라민이 상승하는 상황인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의 상승효과로 고혈압에 노출되기 쉽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심한 경우 당뇨에까지 이를 수 있다(이병해, 2015).

스트레스는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느끼는 일종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극이나 상황과 조우하였을 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곤란이나 곤경이 바로 스트레스이다(강미자, 2012).

Lazarus & Opton(1966)는 스트레스를 행동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나 변화에

요구되는 유기체 외부에 있는 요인이나 자극으로 간주하여 실패 또는 실패의 위협, 환경에서 오는 불유쾌한 대상들, 고립감, 죽음의 경험, 사회변화 등을 일으키는 자극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다(도명애, 2010, 재인용).

또한 Selye(1974)는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스트레스는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비 특징적인 반응이다.

둘째, 외부 환경의 압력 또는 사건 자체를 스트레스로 보는 경우로써, 이는 환경에서 오는 사건, 개인에게 비 상대적 요구를 부과하는 외부환경, 그밖에 생활사건에서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부과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스트레스로 보는 경우이다. 이 의미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이를 대처한 자원의 평가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어떤 위협, 상해, 상실 혹은 도전이 된다고 평가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최금란, 2012, 재인용).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직장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개인의 동기유발을 촉진함으로써 직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박상언, 김민용, 2006). 그러나 개인이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소진과 우울 등 각종 심인성 질환을 일으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로사·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며 이직과 결근의 증가와 직무성과의 저하 등의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박광희, 유화숙, 2003; 서울복지재단, 2005).

2)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개인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을 스트레스로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물리적 요인, 개인적인 요인, 조직적 요인, 조직 외 요인 등이 있다(최진형, 2009). 물리적 요인은 조명, 소음, 온도, 전등이 있으며 개인적 요인은 희망과 좌절, 상호간의 관련 결여, 직장과 가정 사이에 갈등, 조직 사회적 규정 등이 있다. 조직적 요인에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중, 직무불안정, 성과평가, 집단응집력, 리더십유형, 조직적 분위기, 집단 내와 집단 간 갈등, 조직 외 요인은 가족, 경제적 지위, 생활주변의 사건 등이 있다.

김홍규(1998)은 한국인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8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첫째, 부부, 부모, 거주지, 자녀, 경제, 친척, 형제·자매, 가족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이다. 둘째, 장기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정치인, 정치집단, 정치문화에 관련된 스트레스이다. 셋째, 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윤리에 관련된 스트레스이다. 넷째, 사회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다섯째, 건강, 대인관계, 능력 및 생활 태도 등 나 자신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여섯째, 학력 관련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문제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일곱째, 진학 및 진로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여덟째,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이며, 직장의 물리적 환경과 개인관련 및 조직관계,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포함된다.

Hans Selye는 개체의 생활범위 내에서 평형을 파괴하며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성숙과정에서 위기 또는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는 잠재력 있는 자극의 범주를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견해로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생물생태학적 요인, 성격 요인, 주위 환경적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박종미, 1998, 재인용).

우채영(2009)은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발달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특히 대인관계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먼저 경험하게 되며, 청장년의 경우 복잡한 심신의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둘째, 가정적인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가정폭력, 이혼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변화, 문화의 대중화, 소외감, 일탈행위 등은 자살, 약물남용, 성폭력 등의 사회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능력과 흥미를 인식하게 하여 이들에게 유익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보육현장에서 그들의 직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란 교사의 특수한 상황과 역할로 인해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권혜경(2003)은 교사의 스트레스란 교사의 직무상황과 결과로 생기는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심리적 평형상태의 변화로써 교사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자아 존중감이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되는 상태를 말하였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는 자신의 직장 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상사와

동료교사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와 근무 환경(근무조건, 업무수행, 각종시설, 휴식시간, 휴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강혜경, 2002).

선행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선숙(2014)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을 상호작용, 교사의 효능감, 행정적 지원, 원장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보수·후생복지, 사회적 인정으로 분류하였으며, 보육교사들이 행정적 지원, 사회적 인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명준희(2006)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원장의 지도력, 행정적 지원부족, 업무의 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을 때 업무의 질적, 양적인 수행력 저하와 직무에 대한 책임감 상실, 활력의 상실, 지각, 결근, 이직 등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윤미정(2011)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원아들과의 활동요인, 업무관련요인, 행정적 지원요인, 교사관련 요인, 학부모 관련 요인, 경제적 안정요인, 개인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아반 보육교사는 업무관련 요인과 행정적 지원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영아반 보육교사는 학부모 관련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행정적 지원요인,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요인, 업무관련 요인, 경제적 안정요인, 개인 관련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보육교사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물적, 인적 영향을 받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 대인관계에 따른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따른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며, 기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아동학대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2011)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업무관련(과다한 근무시간, 과다한 업무, 수업 외 잡무)부분과 경제관련(낮은 보수, 상여금, 급여일 변동)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하여 설문지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심층면담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방정선, 2013)에서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로서의 관계로 나누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알려주며, 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원만하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불편하고 갈등적인 관계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보육현장에서 동료교사 관계와 그 외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미숙, 2015)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에 대한 학부모의 의심으로 인해 교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보육교

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교사들의 이직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이 깨지는 긴장 상태’를 뜻하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나 직업병을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일부분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지 스트레스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처행동을 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 개인이 자극 정보를 해석하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평가에 의해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좌우된다(김정희, 이장호, 1985).

이처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대처방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좋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Lazarus & Folkman(1991)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섰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내적·외적 요구를 관리하고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라고 정

의한다(김아림, 2010, 재인용).

Averill과 Opton(1974)은 ‘개인이 어려운 작업 요구에 직면될 때 행하는 문제 해결의 노력’이라고 하였고, White(1974)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노력 및 과정’으로 정의하였다(김경면, 2005, 재인용).

대처행동이란 사람과 환경사이에서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으로, 즉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으로 고통의 점차적인 감소, 문제 해결, 현실 검증, 복귀의 과정이며(Perlin & Schooler, 1978),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이다(도명애, 2010).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반영란(1999)은 증상관리 방법, 회피방법, 통제 관리로 구분하였다. 증상관리 방법은 휴식이나 운동과 같은 증상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통제방법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변형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방식이고, 회피방법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다. 장미아(1996)는 물리적 대처, 정신적 대처, 파괴적 대처, 직접적 대처, 심리적 대처방식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혜영(2007), 최옥련(2000)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증상관리방법, 통제방법, 회피방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의 대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직접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제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상황의 인지적 재평가로서 환경이나 자신에 대한 해석적 재평가 방법으로 상황에 대하여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 징후관리는 스트레스 징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김은수, 2007).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영아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통합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등과 같이 보육교사의 유형을 달리 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 또한 교사의 연령, 결혼 유무, 경력과 같이 개인적인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증상관리방법(휴식이나 운동과 같은 증상관리 전략), 통제방법(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변형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중심의 대처방식), 회피방법(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대처방식) 3가지의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거나, 문제 지향적 대처방식(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환경 관련요인에 직면하여 그 원인자체를 변화시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위협을 조절, 통제하려는 노력), 소망적 사고방식(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행동),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려는 행동) 4가지의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문지 조사 연구로 알아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대처행동을 하느냐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격, 사회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전

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 등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실패하면 부적응을 가져오게 되므로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민간, 구립, 가정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 중에서 연구 참여 의지를 밝힌 10명의 교사들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10명 중에서 연구자와 이미 레포형성이 잘 되어있는 4명을 먼저 선정하였으나, 연구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심층면담을 할 경우 연구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Irving, 2006)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 참여자를 보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거나, 동료 교사로부터 소개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집된 교사 중 경력과 학력, 담당 학급 및 결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이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참여자와 대화에서 거론된 영유아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교사들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2와 같다.

< 표 2 > 연구 참여 교사 배경

연구 참여자	나이	경력	학력	자격	담당 연령
백 교사	33세	10년	전문대 졸	보육교사1급	만 3세
신 교사	28세	6년	대졸	보육교사1급	만 1세 쓰리담임
양 교사	34세	10년	방통대졸	보육교사1급 / 시설장	만 4세

강 교사	29세	5년	대졸	보육교사1급 / 시설장	만 4세
최 교사	37세	2년 8개월	대졸	보육교사3급	0세
유 교사	51세	30년	대졸	보육교사1급 / 시설장 / 유치원 정교사1급	0세
김 교사	35세	9년	대졸	보육교사1급 / 시설장	만 1세
이 교사	26세	2년	대졸	보육교사2급 / 정교사 2급	만 5세
박 교사	28세	4년	대졸	정교사2급/ 보육교사1급	만 3세
안 교사	24세	3년	전문대졸	보육교사2급	만 5세

(1) 백 교사

백 교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H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담임교사로 10년째 재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원장님과 학부모들이 유아교사보다 보육교사를 낮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2) 신 교사

신 교사는 대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올해 어린이집을 옮겨 만 1세담임을 맡고 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지만, 올해 새로운 원으로 이직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만1세 영아반 담임역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평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비교하는 학부모나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3) 양 교사

양 교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H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경력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원장과의 교육철학에 대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어린이집 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양 교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경력이 많은 교사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4) 강 교사

강 교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H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본인을 예민한 성격이라고 소개하며, 동료 교사들도 자신의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을 잘 알아 고민을 많이 들어준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것에는 만족하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 크게 확대하여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자신의 성격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5) 최 교사

최 교사는 30대 중반이 넘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육원에서 취득했다. 하지만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원장님과의 잦은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보육교사로서 존중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 하며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고민스럽다고 이야기 했다.

(6) 유 교사

유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20년 이상을 유치원 교사로 재직했다. 유치

원에서 근무하며 원감, 월급 원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8년 전 가정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현재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로 10년 째 근무하고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을 함께 하다 보니 선생님들에 대한 잦은 실수나 현장에서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7) 김 교사

김 교사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어머니의 추천으로 수능점수에 맞는 보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대학 4년 동안 보육과에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으며 방향을 많이 했지만, 졸업할 시기가 되어 생각한 끝에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테스트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업체험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하며 보육교사가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흥미를 느껴 졸업 후 자연스럽게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주임 교사, 만 1세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간자의 역할로서 동료와 겪는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8) 이 교사

이 교사는 4년제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유치원에서의 1년 경력이 있고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D어린이집에서 만 5세반 담임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유치원에 근무할 때에는 3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이후 시간은 아이들이 방과후반 교실에 모여 방과후반 교사와 함께 활동했다고 했다. 유치원교사로 근무할 때에도 몸과 마음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으나, 3시 이후에는 수업준비를 하거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하는 등 개인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

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반 아이들이 하원할 때 까지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스트레스였고, 수업준비를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어린이집에서 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퇴근하고 하거나 주말에 몰아서 한다고 했다. 계속되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피로는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9) 박 교사

박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였으며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의 2년 경력이 있었고,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작년에 옮기게 된 어린이집은 담임교사가 10명 이상인 대규모의 어린이집인데 그러다 보니 이미 친분이 깊어진 동료교사들 사이에 선뜻 나서서 친근함을 표시하지 못했으며, 2년 차가 된 지금도 1~2명의 동료 교사와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고, 그 외의 교사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대학원 수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찍 퇴근해야 하는 날은 동료교사나 원장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10) 안 교사

안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3년 과정을 끝내고 한 달 간 실습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담임을 맡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교사가 되다 보니 학부모가 교사를 전문성 있는 교사로 보기보다는 젊고 예쁜 선생님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했다. 또한 현재 3년 차로 담임을 맡고

있는 안 교사는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지도하는 부분, 학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발달상황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교사인 자신에게 상담을 하기 보다는 원장님에게 상담하는 부분으로 자신이 능력이 없는 교사라고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나이가 어린 교사이며, 부모만큼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예비연구를 위해 2015년 6월 12일, 6월 19일 교사 3명과 2회의 집단면담을 가졌다. 집단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 중 원장이나 주임교사와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교사들에 대한 낮은 인식과 요구되는 여러 가지 서류,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 했다. 3명의 교사는 같은 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교사 개인의 성향이나 대처방식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비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방식을 확장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0명의 교사와 각 2회씩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들의 편

의를 위해 보육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퇴근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60분 정도의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면담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저널쓰기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교사들이 느낀 스트레스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대처했을 때의 경험에 대해 그날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지난 날 기억에 남는 일,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감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연구자의 e-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저널은 면담기간 동안 날짜에 상관없이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저널의 내용이나 양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3. 자료 수집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 내 직무환경과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탐색하고자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교사의 면담은 교사별로 개인면담 2회를 진행하였으며, 필요시 전화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모든 면담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였다. 면담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보육교사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교실에서 이루어지거나 평일이나 주말에 참여교사 집 근처에서 날짜와 시간을 계획하여 이루어졌다.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공감해주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개인의 면담 횟수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각 교사별로 2~3회 정도의 개인면담을 실행하였고, 면담 소요시간은 각 교사별로 1회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할애 되었다. 공식적인 면담 이외

에 전화 통화나 E-mail 서신 등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을 메모해두고, 추후 면담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면담 녹취 내용을 전사하면서 연구자가 놓쳤던 질문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해두고,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다. 1차면담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과 아동학대 사건 이후 새롭게 나타난 스트레스 상황에 관련한 질문들로 진행하였고,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 시 메모한 기록을 바탕으로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스트레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 김언희(2006)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을 참고로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에 사용한 질문은 표3과 같다.

< 표 3 > 면담 주요 내용

구분	면담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보육교사의 스트레스</p>	1. 현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느낄 때가 하루 일과 중 언제인가요?
	3.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4.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이나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나요?
	5.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있었나요?
<p style="text-align: center;">스트레스 대처방식</p>	1.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2.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나요?
	3.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4. 스트레스를 잘 대처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5.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폭식이나 약 복용, 다른 사람에게 피해(짜증 등..)를 주며 해소..)
	6. 긍정적으로 해소해보았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대처방식은 무엇입니까?

2) 연구 참여자의 저널

연구 참여자 10명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어려움이나 좋지 않았던 감정들, 어린이집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나 사건에 대해 이를 저널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동의한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저널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교사들의 저널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대처했을 때의 경험에 대해 그날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지난 날 기억에 남는 일,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감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연구자의 e-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개인 당 면담기간 동안 날짜에 상관없이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였으며, 저널의 내용이나 양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수집한 결과 총 13여 편의 저널이 수집되었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면담 자료와 교사 저널은 전사하거나 기록하여 텍스트화 하였다. 텍스트화 된 자료는 같은 의미로 묶여 질 수 있는 것들로 모아져 주제별로 분류하였고, 각 주제에 맞추어 다시 세부 주제로 배치하였다.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개인면담을 매 회 녹음하였고, 그 내용을 글로 남기는 전사의 과정을 거쳤다.

매회 마다 이루어진 면담 내용들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나 문장 등을 찾아서 분류를 한 후, 그 자료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비슷한 개념을 서로 묶는 유목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통합된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며 의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에 대표할 제목을 기입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이 연구가 잘 쓰인 수필이나 에세이와 구별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김영천, 정정훈, 이명민, 2006). 본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를 위해 면담과 참여교사의 저널을 전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의 전달과 그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일차적 범주목록인 '보육교사가 근무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범주화되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해석의 유아과정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적인 분석을 할 때 유출해낸 범주들은 연구 참여자들을 통한 내부자 검증과 질적 연구자와의 검토를 통해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보육교사가 근무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1)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 뭐든지 해내야 하는 만능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인원, 가혹한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업무 대비 낮은 보수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뭐든지 해내야 하는 만능교사

보육교사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 했다. 영유아를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교실과 화장실 청소, 식사준비, 차량지도 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최 교사의 경우 특별활동 교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심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못하는 거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되죠. 미술, 음악, 체육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청소도 해야 하고 일지도 써야하고, 또 간식도 챙겨야 하지... 아이가 교실

에서 바지에 실수라도 해봐요~ 들고 뛰고 씻기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환경이 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26)

작년이었나? 갑자기 특별활동 선생님이 그만 두신 적이 있어요. 쿠키선생님이
었는데 당장 선생님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때 갑자기 원장님이 쿠키 담
당을 하라고 해서 오븐 사용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쿠키선생님이 되었어요.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특별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진
짜 스트레스였어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1)

매 년 어린이집 대청소를 해요. 청소하는 게 불만은 아닌데, 너무 과한 일까지
해야 하니 그게 불만이에요. 올해도 어린이집 대청소를 했는데, 의자가 너무 더
럽다고 의자 닦는 날을 정해주셨어요. 의자가 대략 200개인데, 6명의 교사가
수세미로 닦고, 행구고 거의 2시간을 그렇게 청소했어요. 다른 날과 똑같이 아
침부터 출근해서 아이들과 활동하고 아이들 다 하원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했
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청소업체를 부르면 안되는거냐고 불만도 얘기했고 그랬
죠..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막노동시키면 잘 할 거라고 했다니까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면담을 통해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와 어떤 일이
든 눈치껏 해결해야 하는 만능교사여야 한다는 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청소를 몇 명의
교사에게 시키거나 본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간식을 조리해야 하는 일들이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
들이 전문적인 교사로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인원

보육교사들은 담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유아의 인원이 많은 점을 스트레스 원인으로 이야기 하며, 근본적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교사들은 많은 인원의 영유아들을 돌보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 하였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외에 온갖 행정업무와 잡무까지 하다 보니 고충이 매우 크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 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아이들을 챙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늘 그렇듯이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되죠.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은 하루 동안 몇 번 대화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아이들이 제게 사랑을 못 느낄까봐 집에 갈 때에는 무조건 한 번 씩 안아주고 하원 시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트레스 받지요.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저희반 아이들은 5명이예요. 돌봐야 하는 인원이 적다고 스트레스를 안받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반 아이들은 손길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라 일일이 제가 다 해줘야 해요. 내 몸이 힘들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죠. 1~2명이라도 결석하는 날은 결석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김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3)

최 교사와 백 교사는 영아반을 담당하는 만큼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영아반의 경우 유아반 보다는 인원이 적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고, 연령이 어려 돌보는데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고 이야기 했다.

저는 만 0세 아이들을 맡고 있어요. 3명을 돌본다고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다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교사가 해줘야 해요. 집에서 엄마들은 아이 한 명 보는 것으로도 진땀 빼시잖아요.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는 거 달래고, 하루 종일 쫓아 다니면 스트레스 어마어마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투 담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저는 15명을 맡고 있어요. 예전에 점심식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반 아이가 토를 한거예요. 그 아이가 그날 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토를 한 아이 옷 갈아입히고 돌봐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의 밥도 나누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날 밥을 먹기도 전에 힘을 다 빼서 아무것도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보조교사 정말 절실해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안 교사가 맡고 있는 만5세는 정원이 22명이다. 높은 연령의 유아들이라 교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조 교사가 없이 많은 인원의 유아들과의 수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활동을 계획할 때 흥미 위주의 수업보다 교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면 교사의 스트레스 또한 누적될 수 있는 염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높은 연령을 맡다 보니 인원이 많긴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죠.

활동을 계획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정말 많아요. 아이들하고 만들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근데 계획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이 활동을 계획하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나..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요. 최대한 제가 덜 힘들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편입니다.(중략) 요즘은 그냥 제가 덜 힘들고 쉬운 활동 위주로 계획하는 편이에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1)

이처럼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영유아의 수가 너무 많다는 데 있었다. 애정표현도 마음껏 해주고 싶고, 즐거운 활동을 계획하여 많은 경험을 주고 싶지만 많은 인원을 돌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혼자서 많은 아이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영유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을,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한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의견이었다.

(3) 가혹한 평가인증과 지도점검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곧,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 지표에 맞는 항목들을 충족시키려 많은 업무를 짊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현직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기준이 다르고, 인증 지표와 인증 방식이 현실성이 없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평가인증으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평가인증을 해야 하니깐 준비하지만 평가인증과 학부모님이 원을 선택 하는 것과는 큰 관련은 없는 듯해요. 전에는 평가인증 점수 75점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재평가를 했는데 아이들을 보지 않고 서류만 하길 원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주변의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아이들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는데,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이라구요. 평가인증은 그냥 나라에서 본인들이 어린이집을 감시하려고 만든 하나의 잣대인거 같아요. 평가인증을 준비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도 시작되는거죠.

(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26)

평가인증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린이집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작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러 오시면 어이없는 꼬투리를 잡으시고 그래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려 하실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받죠.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평가인증 자체가 정말 애매해요. 그 지표대로 해봤자 평가하는 사람들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점수를 주고.. 그리고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어린이집에서 끝내는 건 불가능이죠. 아이들 보지 말고 서류 하라는 건가요? 다 못한 서류는 거의 집에 가져가서 하는 편인데 교사도 집에서 좀 쉬어야 하지 않나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교사들은 평가인증 외에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도점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지도점검이 사고 예방이 아닌 교사들을 감시하는 의미로 왜곡되고 있는 현

실에 교사들은 분통을 터트렸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고 이야기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지도점검에 모니터링단에... 어린이집에 나와서 감시 아닌 감시를 하며 지적하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제 작년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원에 온 적이 있어요. 들어오실 때부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들어오셨죠. 아직도 기억해요.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해놓지 않았었는데, 교사의 입장에서는 만3세 아이들이 휴지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뒤처리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유아가 휴지를 필요로 한다면 교실 안 휴지를 사용하도록 약속을 했었어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대뜸 그건 인권침해라는 거예요. 교사가 유아의 항문을 보는 것도 인권침해라며... 아이를 기관에 맡긴 어머니도 만3세 아이가 스스로 뒤처리를 하시길 원하실까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 데 듣고만 있었어요. 점검이 아니라 지적단이죠.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지도점검이 나온다는 공지가 뜨면 일단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워낙 날카로운 시선으로 따지고 보시니까 눈치 보게 되고... 요즘은 아동학대 때문에 마치 모든 교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봐요. 정작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시선이 굵지 않는데 엄마들이야 뭐 오죽할까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과 수시로 진행되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많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5~6가지 이상의 서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업무 시간 내에 주어진 서류를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업무 시간 내에 하지 못한 업무를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하고 있었다.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적 서류들로 인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류적인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죠. 특히 엄마들에게 보여주기 식 활동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예요. 활동 하나를 하더라도 사진으로 남기고, 문서로 남겨야 하니깐요. 꼭 매번 활동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야 하니깐 그것도 힘들고... 거의 보여주기 식으로 하게되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원장님이 서류에 엄청 엄격하세요.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작성해놓으면 나중에 평가받을 때도 큰 문제없으니깐 그러시겠죠? 근데 교사들은 스트레스예요. 가끔은 그냥 유아교육 관련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보고 쓸 때도 많아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특히 안 교사와 신 교사는 원장님이 담당하는 서류까지 도맡아 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며, 무엇이든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상황에 가끔은 형식만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고도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운영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행정적 서류작성이 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 형식적으로 서류가 이루어진다면 원 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의미 없는 업무로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제가 맡은 서류는 6개 정도 되거든요. 좀 어이가 없는 게, 원장님이 하셔야 하는 운영일지 같은 서류도 교사에게 떠맡기세요. 시키시니까 불만 있어도 하는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서류까지 떠안으니 스트레스 받아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1)

학기 초에 업무분담하면서 맡은 서류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왜 이런 것 가

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쓸 데 없는 서류들이 많아요. 게다가 원장님이 하셔야 하는 운영일지까지 시키니 더 스트레스 받죠. 가끔은 대충 형식만 맞춰서 서류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이처럼 면담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서류업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결국 가정으로 가져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된다. 교사들은 정말 필요한 서류업무 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업무 대비 낮은 보수

보육교사들은 과도하게 주어지는 업무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보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높아지는 경력에 비해 보수는 낮게 책정되는 상황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양교사의 경우 보육예산이 부족하다며 국가에서 제공되는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에 학부모님이 보육교사는 3D업종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언젠는 주말에도 어린이집에 나와서 못 다한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어요. 경력은 점점 높아지고, 나이는 먹고, 월급은 적고....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건 우리인데, 왜 보육교사 월급은 안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경력이 오르면 뭐해요? 그래 봤자 몇 만원 오르지도 않는 월급... 우리는 봉사정신 없으면 이 일 못해요. 월급으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저는 경력도 많은데 어디 가서 월급 얼마 받는지 말 못해요. 창피해서.. 일이 힘들어도 월급 많이 받으면 그래도 참고 할 수 있겠지만 일도 힘든데 돈도 얼마 못 받으니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맨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느니 마느니 하면서 제자리 아닌가요? 심지어 작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리과정 수당도 한 달 늦게 받았어요.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5)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고 법적 근거와 행정체계를 가지고 이원적 형태를 유지하여 왔다(허수연, 2014).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보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보육환경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보다 낮은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아쉽다고 말했다.

백 교사와 신 교사, 박교사는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비교되며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까지 차별당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했다.

할 일은 많은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잖아요. 특히 좀 억울한 건, 유치원과 호봉이 정말 많이 차이나요. 대학교 동기들 중에는 유치원 교사도 있거든요. 이야

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보다 근무환경이 나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받는지 서로 이야기 해보면 너무 비교 되요. 그럴 때는 진짜 일할 맛 안나죠.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경력이 10년인데, 사실상 제 경력과 같은 유치원선생님은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요. 말은 연령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인지도 낮은데 월급까지 적게 주니까 더 스트레스죠. 똑같이 누리과정대로 수업하는데 월급은 왜 똑같이 주지 않는거죠?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해 봤는데 아무래도 유치원교사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은 아이를 돌봐주는 곳, 유치원은 교육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나라에서 받는 월급도 다르고.. 내년에는 유치원으로 다시 옮길까 생각 중에 있어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0)

이처럼 교사들은 업무 대비 낮은 보수도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며 유치원을 더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보는 시선으로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은 낮고, 교사들에 대한 보수 또한 차별화되고 있는 현실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노동 강도를 생각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지원문제를 개선하고, 급여수준을 적절하게 책정해주는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어린이집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1)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보육교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한다.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보육시설도 하나의 사회이며 조직이기 때문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은 다양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사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권동순, 1999). 교사들은 동교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경력교사로서의 희생, 중간자의 역할로서의 갈등, 서로 다른 교육방식으로 인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① 경력이 많은 교사의 희생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희생정신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력교사들은 대부분 초임교사나 자신보다 경력이 낮은 교사들에게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경력교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또한 경력교사의 도움을 고마워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초임교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며 업무태만의 자세를 보이는 교사가 있어 스트레스가 더해진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에 새로 오신 A선생님이 있어요. 저와는 경력이 반 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우리 원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우리 원에서 경력이 제일 많아 A선생님이 잘 모르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해주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1년은 함께 일해야 하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싶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아무래도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하는 게 경력교사의 역할이긴 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려고 하니 힘들 때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느긋하게 일하기엔 하루가 너무 짧거든요.. 주임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경력교사는 희생하는 거라고.. 스트레스 받죠.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박교사의 경우 경력이 많은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들이 가진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고, 백교사의 경우 자신보다 경력이 낮은 동료 교사들을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새로운 활동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원장님께 무언가 요구를 해야 할 때 경력이 많으면 총대를 메게 되죠. 괜히 나섰다가 나만 이상한 교사 되는 적도 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죠.. 게다가 경력이 많으면 이직하기도 힘들어요. 경력교사는 급여도 많이 줘야하니깐 원장님들이 선호하지는 않죠.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0)

저는 원에서 선생님들 중 경력이 제일 높아요. 그렇다고 주임은 아니지만 경력이 높으니깐 선생님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사 때문에 단체 일을 해야 할 때나 새로운 활동을 계획할 때,, 원장님은 제가 경력이 많으니깐 알아서 선생님들에게 싫은 소리도 하면서 이끌어주길 원하세요. 저는 선생님들과 친분이 있는데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밑에 선생님들에게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선생님들과도 관계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원장님께 인정받으려면 해야 해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이처럼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많은 경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경력은 득이 되기보다는 이직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며, 낮은 경력의 교사들에게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존재로 나날이 스트레스만 더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였다.

② 중간자의 역할로서의 갈등

어린이집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주임교사는 대부분 담임을 겸직하고 있었다. 동료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나 중간자로서 쓴 소리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의도치 않게 동료교사들에게 뒷말을 듣기도 하고, 잘 쌓아놓았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늘 함께 의견을 나누며 근무해야 하는 관계이기에 관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저는 주임과 담임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아무래도 중간관리자의 역할도 함께 주어진다면 보니 동료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이해해주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많은 불만이 있죠. 친해지고 싶은데 깊이 친해지지 못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서 속마음을 듣기도 해요.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김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3)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인 유교사는 0세반에서 두 담임을 맡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이다 보니 교사의 인원이 많지 않았고, 교사들의 연령이 대체적으로 원장님과 비슷하다보니 거리낌 없이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교사들

과의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으나 원장의 입장으로 교사를 바라보다 보니, 교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교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교사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이다 보니 내가 원장을 하면서 0세반 투 담임도 맡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고 연령도 다른 어린이집보다 높은 편이라 나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나는 또 원장의 시선으로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아마 선생님들도 내가 불편할거야.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 받고..

(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26)

③ 서로 다른 교육방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교사들은 저마다의 교육방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 간의 서로 다른 교육방식이나 교육철학으로 인해 갈등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같은 연령을 담당하는 교사 간에 활동을 계획하는 부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경력은 많지만 새로운 연령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교육하는 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저희 어린이집은 만3세~5세반이 두 반씩 있어요. 같은 연령 선생님끼리 짝공이 되는거예요. 늘 활동 계획도 같이 하고 수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서로 교육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하다 못해 정말 작은 규칙 하나라도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서로의 방식을 좀 이해해줬으면 할 때가 많죠.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저는 경력이 6년 차이지만 만 1세 담임을 처음 맡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도와주는데 함께 일하는 선생님은 제 행동에 불만이 많으세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린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선생님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편이라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전 3명의 담임이 함께 아이들을 보니까 트러블이 더 생기는 거 같아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경력이 낮은 교사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수업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교사와 강교사의 경우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력이 더 많은 교사가 현장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낮은 경력의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경력이 많지 않다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대부분 경력 많은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때가 많죠.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이 볼 때에는 제가 하는 것들이 서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마다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수업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고민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꼭 저보다 경력 많은 선생님은 태클을 걸어요. 마치 제가 하는 방법이 틀린 것처럼.. 그럼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무언가를 계획하면 주임선생님과 꼭 빈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주임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닌 것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시거든요. 저는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이 있고, 활동을 계획했을 때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한 것인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현장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꼭 기분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교사들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개인이 가진 스타일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이처럼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는 교사들의 갈등상황은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교사들은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교사들만이 가진 교육방식을 서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원장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 특히 상관과의 인간관계를 들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언행, 교사의 잘못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뒤에서 험담하는 모습, 실수나 잘못을 무조건 교사에게 탓하는 경우, 서로 다른 교육철학으로 인한 충돌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원장

교사들은 개인이 가진 성향이나 외적인 문제로 교사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원장의 말투나 행동에 존중받지 못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최교사의 경우 원장님이 자신의 뚱뚱한 체형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하는

등 인격모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강교사는 초임시절부터 소극적이고 소심해 보이는 성격이 원장에게 낙인 되어 성격과 무관한 일들에도 무조건 성격과 연관시켜 교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는 약간 덩치가 있는 체형이에요. 원장님이 기분 나쁜 농담을 자주 하셨는데, 제가 출근할 때 인터폰을 보면 덩치가 커서 남자가 온 줄 알았다는 등.. 살이 너무 찢다는 등 우스갯소리로 말하셨어요.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렸더니 농담인데 뭘 그러냐며 웃어넘기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농담이라고 넘기니.. 스트레스 받죠..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출근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원장님을 만날 생각에 출근하기가 너무도 싫었다. 나도 내 덩치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콤플렉스인데 웃으며 농담하는 원장님이 너무 보기 싫다. 이번 달만 하고 그만 일하겠다고 말하려는데 마음이 무겁다.

(최교사저널, 2015. 8. 4)

늘 원장님은 교사들의 성격을 혈액형으로 판단하셨어요. 저는 A형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A형 성격 또 나왔네."라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고, 학부모님과 충돌이 생겨서 조언을 구하면 "선생님 A형이라 그래. 소심한 성격 고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뭐든 혈액형으로 안 좋게 판단하는 원장님이 밉기도 했는데, 여전히 신입선생님이 오면 혈액형이 뭐냐며 우스갯소리로 "또 A형 아니야?"라는 농담을 하시기도 해요. 제 성격을 혈액형 하나로 안 좋게 판단하시니 스트레스였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또한 교사들의 언행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원장의 잣대에 맞추어 평가하고 교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부분이 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작년에 지금의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어요.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계시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학부모님들이야 얼굴을 아는데 모르는 분들에게 인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원장님이 제가 없는 회의시간에 "○○선생님은 왜 그렇게 인사를 안해?" 라며 다른 선생님들에게 흉을 보셨대요. 그날저한테 대놓고 말하시면 고칠 것을.. 원장님 얼굴 보기도 싫더라고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0)

작년에 어린이집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직은 몇 명의 선생님들과만 친분이 있다. 어린이집 규모가 커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친한 것은 아니다. 원장님이 꼭 교사들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회의 때나 뒤에서 험담을 하시는 바람에 아직 친해지지 않은 교사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이 가는건 사실이다. 이 곳에서 계속 일하고는 싶은데 원장님의 행동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박교사 저널, 2015. 7. 25)

이처럼 교사들은 원장과 관계에 있어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교사가 가진 능력을 성격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아닌 전문적인 교사로서 평가받고 존중받기를 원했다. 또한 교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나 잘못된 언행에 대한 쓴 소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② 무엇이든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원장

교사들은 실수를 무조건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원장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만큼 실수가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교사의 탓으로 여기며 질책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원장이 조금은 교사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학원을 1~2개씩은 다녀요. 그러다보니 하원시간이 다들 일정하지가 않죠. 매 주 요일마다 하원시간이 다른 아이들도 있고... 하원차를 타는 아이들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차량 선생님이 아이를 놓칠 때도 있고.. 제가 아이 하원시간을 착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 무조건 교사만 탓하세요. "선생님 정신 안 차릴래?" 라고.. 나도 사람인데 실수를 안할 수 있나요? 자식 한 명인 엄마들도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뭐든 내 잘못인거예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아이들이 하원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다보니 헷갈릴 때가 많죠. 매일 하원차량 시간을 변경하는 엄마도 있고, 요일마다 다르게 하원 시켜달라는 엄마도 있고, 메모에 따로 적어두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원장님은 실수를 하면 교사보다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 꾸짖으세요. 한편으로는 속상하죠. 사람인데 실수를 어떻게 안할 수 있나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1)

최교사와 이교사의 경우 아이들이 기관에서 생활을 하며 다치는 부분에 늘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 하며, 늘 교사의 편이 아닌 학부모의 편에 서서 교사의 잘잘못만 따지는 원장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교구장에 부딪혔어요. 이마에 멍이 들었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하나 고민도 하고 아이가 늦게 하원해서 약도 수시로 발라주고... 어머니가 오셔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봤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논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는지 정말 스트레스였죠...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매번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원장님이 밉다. 덩치가 크다고 애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뭐만 하면 다 내 탓이라는 식으로 말하신다. 올해만 일하고 나갈 생각에 나도 어린이집에 큰 애정이 없지만 이렇게 매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최교사 저널, 2015. 8. 5)

아이들이 다쳤을 때, 제일 무서운 건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원장님이기도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죠. 실수를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늘 교사가 잘못된 상황으로 만드는 원장님이 밉기도 해요.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이처럼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개인 스케줄에 따라 교사의 보호가 필요하게 된 부분이 있다. 한 명의 아이들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기에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교사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교사의 탓만 하는 원장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생활을 하며 다치는 경우 교사의 탓으로 돌리며 꾸중을 하는 모습이 서운하다고 이야기 했다.

③ 서로 다른 교육철학으로 인한 충돌

일반적으로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기관의 보육철학을 심어 줄 수 있는 보육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사의 업무 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원장의 보육철학에 의해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을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보육철학과 규칙으로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원장의 보육철학이나 생각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영유아들도 교사의 눈치를 보며 잘 해낼 수 있는 일들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의견이었다.

원장님과 제가 생각하는 교육철학이 다르다보니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저는 아이들 식습관 지도할 때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게 권하는 편이에요. 억지로 먹이는 건 아니지만 안 먹어봐서 못 먹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늘 그냥 버려주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식사시간에 원장님이 들어오시면 잘 먹는 음식도 못 먹겠다며 칭얼대요. 그럼 원장님이 버려주시죠. 담임으로서 난감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1)

오늘도 원장님이 식사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 아이들이 약속한 것처럼 원장님을 보자마자 먹기 힘들다는 표정을 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고, 원장님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불편했다. 예전에 원장님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렸다가 서운함을 표현하신 적이 있어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오늘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며 식사시간을 보냈다.

(안교사 저널, 2015. 7. 21)

저는 3월부터 기본생활습관이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확실하게 적응시켜요. 그러다보면 교사로서 편하고.. 아이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지니까 편하죠. 하지만 원장님은 아이들을 아기같이 대하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담임의 시각과 원장님의 시각은 달라요. 원장님이 저를 보실 때는 아이들을 잘 도와주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는 교사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겠죠? 원장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일단 스트레스죠...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5)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장의 교육철학과 운영방식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교사들 개개인에게도 나름의 교육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이해 받고 교사들의 생각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3)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한 학부모, 전염병과 상처에 예민한 학부모,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부모, SNS로 톨톨 뭉친 학부모,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①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솔직하지 못한 학부모

교사와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은 영유아의 경험이나 발달 상황에 대해 가정과 보육기관을 연결 짓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오랜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백교사와 강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아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육하는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이

야기 하였다.

아이에 대한 성격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는 상담을 통해 해결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문제를 말씀드려도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라고만 하세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예전에 다니던 만 3세 아이가 학기 초 말도 어눌하고 교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이 서툴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가정에서 보내 주신 영유아 건강 검진표를 확인하다 알게 되었는데, 약한 감기기운에도 열 경기를 하고 언어발달이 조금 느리다고 진단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를 부족한 아이로 보실까봐..."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훈육을 해가며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려 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그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원망스러웠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또한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스트레스 중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몰래 교사의 행동을 지켜보거나, 교사의 능력을 시험하는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백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 교실 벽면이 투명한 창문으로 되어 있었다. 교실 내부가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어 모양 시트지로 창문을 꾸며놓았는데, 다소 예민하거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학부모들은 시트지 사이 창문으로 교실을 몰래 관찰하는 행동

을 보여 자신의 행동을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기 초가 되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웃어요. 엄마들이 교사랑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교사들 간 본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등원하면 친절하게 서로 인사 해놓고 아이가 교실로 들어갈 때 까지 유리문 사이로 지켜봐요.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 안하죠~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6월인데도 여전히 문틈 사이로 감시하는 학부모가 있다. 앞에서는 한 없이 웃으며 친절한 엄마인데 꼭 아이를 데리러 올 때는 바로 벨을 누르지 않고 문틈 사이로 쳐다본다. 오늘은 민망하게도 나와 눈이 마주쳐 어머니가 벨을 누르지 않으셨는데 문을 열어드렸다. 어머님도 민망하셨는지 "**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라며 멋쩍어 하셨다. 나도 모르게 언짢은 표정이 드러났다. 오늘 같은 날은 짜증이 난다.

(2015. 6. 25 백교사 저널)

어떤 교사이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업이나 영유아에게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학부모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경우 그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음 사례로 이교사는 이제 2년 차가 된 초임교사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학부모의 태도에 서운한 감정을 느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는 속상함과 스트레스를 느꼈던 감정을 호소하였다.

저는 경력이 얼마 없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아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끔 까칠한 어머니는 갑자

기 전화해서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묻거나 어떤 친구와 잘 어울리느냐고 꼭 짚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실 어머니의 속마음은 우리 아이에 대해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 반 아이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갑자기 누구와 잘 노는지,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물으시면 머리가 새하얘져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버벅거리며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고, 제 능력이 한 없이 낮게 느껴졌어요. 그 후에 원장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 드렸는데 "엄마가 또 뭐 기분 나쁜 일 있나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자기 아이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떠 보신거죠.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② 전염병과 상처에 예민한 학부모

어린이집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는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성홍열(3군 감염병) 등과 같은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전염병은 환자와의 직접 접촉 또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단체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박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염병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예전에 수두가 어린이집에 돈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수두에 걸렸다고 결석을 했어요. 오후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는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수두에 걸려서 오느냐고 따지시는거예요. 잠복기라는 게 있고 기관에서 단체생활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머니가 마치 아이를 병에 걸리게 만든 사람처럼 이야기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0)

그 외에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모기에 물려오거나 아이들과 놀이 상황에서 생기는 상처로 인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학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작은 상처에도 자신이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고 이야기 했다.

원에서 숲 프로그램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숲으로 나가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기가 많아서 미리 가정통신문에 모기패치를 붙여서 보내거나 긴 바지를 입혀달라고 공지가 나가죠. 그래도 모기가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모기 많이 물렸다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사가 해줄 수 없는 범위에서 뭐라고 하시면 나더러 어쩔라고요...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아이들이 다치는 게 제일 스트레스죠. 제가 잘 본다고 안 다치나요? 눈앞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5세담임을 맡았을 때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늘 계속 그 아이만 조금씩 다치더라고요. 아이들과 놀이하다 다치기도 하고,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부딪혀서 다치고... 교사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커요. 어머님도 속상하셨을 테지만 늘 다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통명스럽게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어쨌든 제 잘못이 크지만 잘 좀 봐달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거나 놀다 다치면 아이들 살피기 전에 '엄마한테 또 한소리 듣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만큼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시니까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 안 다칠 수 있나요. 쿨~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부모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5)

특히 신교사는 만 1세 영아를 처음 맡게 된 교사로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살짝만 부딪혀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될 수 있으면 신체활동이나 바깥놀이를 자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어린 연령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경우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만 1세를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 연령은 처음 맡아봐서 잘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기 초에 반 아이가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마침 옆에 있던 교구장에 이마를 부딪혔거든요. 그날 어머니가 제게 아이가 다쳐 속상하다고 잘 봐달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아이를 잘 보려고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던 상태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바깥놀이를 나가거나 신체활동이 있는 날에는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아이들을 보게 되었죠.. 웬만하면 산책은 안나가고 싶어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괜찮니?" 라고 묻고 살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당황하거나 화난 표정이 드러난다. 아이가 다침과 동시에 학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할 일, 원장님께 말씀드리며 떨끄러워질 상황이 먼저 떠오른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하시니까 아이들이 다치면 그것도 스트레스다.

(백교사 저널, 2015. 7. 2)

이처럼 교사들은 전염병과 상처에 예민한 학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를 상처나 사고에 항상 긴장하게 된다고 했다.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작은 상처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많고 또래관계에서의 놀이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다툼에도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③ 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부모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유아의 생활모습이나 발달상황을 부모만큼이나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이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영유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아의 문제 상황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교사가 제시하는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저희 반에 몸무게가 35kg인 여자아이가 있어요. 만 4세인데 몸무게 많이 나가다 보니 교사로서 걱정되죠. 아이가 체격이 있다 보니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되게 소극적이에요. 어머님도 같은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식단관리를 해주시지도 않고 제가 조언을 드려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걱정하고.. 교사가 조언하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아이가 친구가 없다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한 대요. 지켜보니 아침에 매일 11시가 되어야 등원하거든요. 그 시간이면 이미 자유선택놀이기도 끝나고 활동이 시작되는데 결국 놀이시간도 별로 없이 어린이집에서 밥만 먹고 하원 하는 식이에요. 조금 일찍 등원시켜주셔야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고, 친구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해요. 저도 이젠 포기죠 뭐~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5)

A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만 5세라 이미 다른 아이들은 그룹을 정해놓고 친해졌는데 A는 교사의 개입이 없으면 거의 혼자 놀이를 해요. 어머님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상담을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를 많이 드렸었어요. 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이의 성향이 어떠한지.. 하원을 하면 무엇을 하는지 여쭙보니 집에서 엄마와 같이 놀거나 혼자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외의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은 낯설어 해서 가지 않으려 한다고 하시며 결국 저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셨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1)

또한 보육교사들은 아이의 문제행동을 학부모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했다. 교사는 전문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행동이나 발달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관찰하는데, 그로 인해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행동을 함께 고민하고자 학부모와 상담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저평가한다는 생각을 하며 반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김 교사는 반 아이의 평소 행동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을 한 후,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로 원을 그만 두었다고 이야기 했다.

예전에 담임을 맡았던 만 4세 아이가 있었어요. 원에서는 장난끼도 많고 대그룹 활동을 할 때 집중도 잘 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는 굉장히 바르고 잘못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담임인 제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원장님께서 어머니와 상담을 하며 원에서의 솔직한 모습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며칠 후 오셔서 다른 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며, 우리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셔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김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3)

학부모를 대할 때 제일 힘든 점이 교사로서 문제행동이 보이는 아이에 대해 조언을 드릴 때죠. 저는 경력이 많은 편도 아니고, 어머님들이 보실 때에 어려 보여요. 그래서 무언가 조언을 하면 마치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저희 반에 의사표현을 잘 못하고 욕구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어요. 작년 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요. 2년이 다 되어 가죠. 달래도 보고,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엄하게 혼낼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유전이라고만 하세요. 이쯤 되면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에게 솔직한 아이의 평가를 한다면 보육교사를 크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어 말하기 민감하고, 자칫 학부모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를 안 좋아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스트레스였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이처럼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나 발달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제시하는 일은 학부모에게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학부모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감과 전문적인 자질이 낮게 평가되면서 학부모 또한 교사를 전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④ SNS로 뽕뽕 뽕친 학부모들

SNS가 활성화 되면서 이제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SNS로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어린이집에서도 SNS를 통해 유아의 활동사진을 업로드하고, 학부모가

바로 확인하며 댓글도 다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교사의 핸드폰번호가 공개된 경우 학부모가 요구사항을 문자로 발송하여, 교사가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에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SNS로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사이에서 교사를 험담하는데 모바일 상으로 학부모들이 험담한 내용들을 교사들이 쉽게 볼 수 있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다 보니 아이들의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핸드폰에 원장님과 교사,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채팅창에 "** 오늘 5시까지 데리러 갈게요. 준비시켜주세요.", "**가 오늘 아침에 열이 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라며 문자를 남기세요. 그러면 교사들이 바로 답장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에 문자 소리 듣고 일일이 답해줘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예요. 그럴 때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어린이집 차량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토티로 다른 학부모님들의 사생활도 볼 수 있어요. 가끔 보면 그 공간 안에서 교사들을 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A선생님은 꼼꼼하지 않다는 등.. B선생님은 애들을 잡는다는 등,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만들어 왔는데 쓸모가 없다는 등.. 그럼 다른 어머님들이 동조하는 글들을 남겨요. 한 명의 학부모님이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교사는 좋은 교사도 될 수 있고 못된 교사도 될 수 있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4)

또한 신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의 특성상 개인 핸드폰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연락을 해오는 학부모도 있다고 불

만을 토로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저희 어린이집은 교사의 핸드폰번호를 엄마들에게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학기 초에 교사 편지와 번호가 함께 나가죠. 요즘은 SNS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핸드폰 공개 하나로 제 사생활이 다 노출 되요. 뭐.. 공개 되는 것은 둘째 치고 주말에 엄마들에게 전화 올 때도 있어요. 정말 소소한 내용... 준비물이 뭔지.. 우리애가 상처가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말엔 자유롭고 싶어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다. 지난 번 어린이집에서는 핸드폰번호는 공개하지 않아 편했는데, 지금은 내 사생활이 없어진 기분이다.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집에 가면 문자가 1~2개씩은 오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이다. 몇 번은 자는 척 하고 답장을 안 보낸 적도 있었는데 엄마들도 교사들을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신교사 저널, 2015. 8. 1)

모바일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편리하게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된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로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학부모들 간에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교사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로 다가온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요즘은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핸드폰번호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연락을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⑤ 엄마인가? 교사인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영유아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교사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역할을 대신하며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만 교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호나 욕구충족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아이만 귀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몸과 마음이 고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많아지는 게 스트레스죠. 물론 모든 아이들을 세심하게 맞춰주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 아이만 귀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자기 아이만 더 봐주길 바라고.... 매년 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26)

작년에 재롱잔치를 했었어요. 솔직히 자리 배정하는 문제로 원장님과 많이 상의했거든요. 누군 끝에 서고 누군 가운데 선다고 말이 많다고 하셔서... 아나나 다를까.. 공연 끝나고 한 어머님이 오셔서 자리를 배정하는 기준이 뭐냐며 서운하다는 듯이 말씀 하시는거죠.. 제 마음은 모두 가운데에 세워주고 싶어요. 어쩔 자기 자식만 생각하시는지.. 그날 행사 잘 끝내놓고 집에 가서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몰라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이처럼 교사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애정을 주고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에 대한 요구만을 들어주길 원하는 학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최교사는 아이에게 무관심하면서도 교사에게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학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몇 년 동안 신뢰를 쌓아 놓았던 학부모더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의견이었다.

제가 있는 원은 부모님이 거의 맞벌이예요. 그러다보니 가정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주실 때가 있는데, 어제 입었던 옷을 더러워진 채로 그대로 입혀 보내거나 가정통신문에 적은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10명 중 5~6명은 될걸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안됐는데 가정에서 잘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어린이집에 요구만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나도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백교사는 교사에 대한 배려 없이 과도한 요구사항을 수시로 했었던 학부모를 기억하며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던 해였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가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으며, 조금은 교사의 입장에서 배려를 받고자 했다.

저는 10년 동안의 경력이 있어서 그만큼 학부모님들도 많이 대해봤어요. 요구하니까 생각하는데, 한 4년 전이었나? 늘 힘들게 했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일단 등원하면 아침에 약을 못 먹었으니 먹여 달라, 비 오는 날이면 아침에 등원하다가 바지가 젖었으니 갈아 입혀 달라.. 요구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나중에는 감기약을 넣어 보내면서 투약의뢰서에 "아이를 45 °각도로 눕혀 먹여주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진짜 억지죠.. 그 해에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6. 22)

이처럼 교사는 많은 영유아들을 돌봐야 하는 동시에 여러 명의 학부모의 요

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배려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은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고, 자신의 아이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이야기 했다.

3)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1)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예로부터 유아교사의 일은 여성들의 일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돌봄의 행위는 전문적이거나 지적인 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보육기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으며, 여전히 보수는 낮게 표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들은 자존감이 하락하고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결정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댓글을 보고 충격 받았어요. 익명으로 어떤 사람이 보육교사들은 학교 다닐 때 매일 술 마시고 나이트에서 놀다가 할 것 없어서 어린이집 취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썼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들던지... 제발 우리가 하는 일 한 번이라도 와서 경험해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아동학대 사건 일어나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아졌죠. 특히 매체에서 보육교사를 되게 안 좋은 인식으로 보게 만든 것 같아요. 왜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보다는 그냥 자극적으로 보도하려고 '보육

교사는 '아동학대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이라고 표현 했던 게 기억나요.

(최교사와의 전화상담, 2015. 8. 14)

매체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 죄 없는 교사들에게까지 인식이 나빠졌다고 이야기 하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마치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많은 노력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며, 누구나 전문성이 없이 쉽게 해낼 수 있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보육교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일하면서 힘들죠. 이 일을 하면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아이들과 지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아이들이 저에게 의지를 하면서 생활하면 스스로 만족을 했지.. 근데 아동학대 사건 일어나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져서 속상하죠.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인식이나 대우가 안 좋으면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14)

아이 때린 선생님이 정말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 TV에서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 안 좋은 인식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올해 1월이었나? 그 때 김치 사건 일어났었죠? 그 이후로 몇 주는 계속 TV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 학대했던 장면을 반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린이집 교사라는 걸 말하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김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내가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만 해도 보육교사라는 이미지는 착하고, 밝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였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부터는 보육교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나는 나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하등시 되는 직업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 내년에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강교사 저널, 2015. 7. 21)

이처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된 업무를 해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방향 없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방침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가나 매체의 태도에 대해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보육교사들의 자부심 상실,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비춰지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습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음식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건 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위축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애초에 권하지 않는 등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10년 경력동안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인 적이 없어요. 김치 학대사건 이후 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아시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라며 농담 섞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전 첫 째 아이도 담임을 해서 신뢰가 많이 쌓인 경우거든요... 시선이 의심의 눈초리지요... 이제는 아이들이 못 먹겠다고 하면 바로 버려줘요.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8)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교사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학부모들이 증가하였고, 아이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죄 없는 보육교사들까지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바라보고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불신은 교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영유아를 올바르게 보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생각으로 볼 수 있다.

아이에게 바르게 앉아야지, 하면서 어깨를 잡으며 자세를 바로잡아주었는데 집에 가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어리다보니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셨죠. CCTV를 확인하고 결국 오해를 풀고 사과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조금 더 믿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라고 말하셨어요. 어머니가 이해는 갔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할 행동을 했나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김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반 남자 아이 중에 친구를 습관적으로 꼬집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손이 자꾸 미운 손으로 변하려는거야?" 라고 말했다가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손을 칼로 잘라 나쁜 사람에게 던져준다고 했어요. 설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이 말을 완전히 믿지 않을 수 없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에게 학대 관련하여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오늘은 원장선생님 마저도 나에게 추궁하듯 물어봐 억울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언행에 조금 더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정말 그만 두고 싶다.

(양교사 저널, 2015. 7. 28)

올해 초였나? 경찰관이 어린이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도 했고, 교실도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더라고요. 경찰관은 저희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둘러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던지요... 감시 받는 느낌이었어요.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이처럼 교사들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몇 년간 쌓아놓았던 신뢰까지 낮아졌다고 속상함을 토로했고, 학부모 외에 보육기관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 같다며 늘 누군가에게 감시받으며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3) CCTV로 무너진 교사들의 자존심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4월 국회에서 ‘CCTV설치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CCTV를 각각 1대 씩은 설치해야 한다. 결국 화장실과 원장실,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CCTV설치는 필수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CCTV가 1대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로 CCTV가 교사들을 감시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어 보육교사들은 자존감 하락과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더 크게 부풀려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들도 나름 예민 하셔서 아이들 말만 믿고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으시는데 교사가 그냥 아이들만 봐주기만 역할만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교사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CCTV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학부모님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올해 처음 담임을 맡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실 천정에 CCTV가 있었거든요. 한 남자 아이가 그걸 보고 "선생님 저거는 나쁜 사람들 잡아가라고 있는거지요?" 라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누군가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해줬겠죠. 아이들도 알아요. CCTV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싶어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14)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이후로 원장님이 자주 교실을 관찰하신다. 하루 하루 특정 반을 확대하여 관찰하시는데 교사로서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떳떳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나 또한 아이들에게 가식으로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강교사 저널, 2015. 7. 28)

안교사와 백교사의 경우 CCTV가 생긴 이후로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고, 가끔은 아이들과 생활할 때 의식하며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무실에서 우리교실을 CCTV로 보면 확대도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이거든요. 원장님이 수시로 보고 계실 때가 많아서 저도 아이들에게 의식하며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부자

연스럽죠.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14)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막상 설치가 되니 누군가가 항상 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8)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제시한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들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기관에 설치된 CCTV가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었다. CCTV 오남용으로 인해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신뢰형성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로서만 기능해야 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따뜻한 신뢰가 필요한 현실이다.

4) 훈육과 학대의 불확실한 경계점

영유아를 지도하다 보면 훈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훈육이나 체벌은 유아를 올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훈육의 정도가 지나치면 곧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훈육을 학대로 바라보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도 훈육을 허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와 교사 사이에 불신이 팽배하다.

교사들은 훈육과 학대의 불확실한 경계점으로 인해 학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

며, 가끔은 사소한 행동도 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유아의 잘못된 행동도 그냥 모르는 척 넘겨버린 경험도 많다고 하였다. 특히 신교사는 아동학대 연수에서 조차도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훈육하는 방식 하나 하나가 아동학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연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학대에 대한 유형이나 학대 받은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 혼내는 것, 거의 다 학대로 포함된다더군요. 보육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훈육하는 방식들도 학대라고 얘기하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영유아들과 생활을 하다보면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고집을 부리는 아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 등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대교사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걱정되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훈육은 하지 않고 아이들을 다치지만 얹게 돌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는 아이, 떼를 부리는 아이, 밥을 스스로 먹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일이지요.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아이들을 가만히 둘까? 생각도 들고, 괜히 훈육한다고 혼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에게 학대를 하는 교사로 보일 것 같아 두렵기도 해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다치지만 얹게 하자는 생각이 더 많아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5. 7. 27)

잘못된 행동으로 혼을 내면 정말 예민한 어머니들은 다음 날 이야기를 하세요. 꾸중을 들은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지만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어머니들이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훈육의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이들 합부로 혼낼 수도 없어요. 나까지 나쁜 교사로 몰아세우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혼내지도 못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양 교사는 아이들과 생활하며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그만큼 아이들이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단호한 말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단호한 말투나 표정, 행동 하나 하나가 학부모에게는 의심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이를 훈육한 후에는 항상 먼저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일어났던 상황과 자신이 아이에게 보인 행동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였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잡아 주는게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혼내거나 주의를 주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요. 제가 아이를 조금 엄하게 혼냈던 날에는 미리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 아이를 좀 엄하게 혼냈다고... 그래야 나중에 댄 소리 안하시죠..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7)

오늘 **가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있다가 결국 뒤로 넘어졌다. 놀라기도 했고 화가 나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며 혼을 냈다. 아이도 놀라서 크게 울었고 놀이를 하던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란 눈치였다. 아이가 크게 다칠 뻔 한 상황에 나도 너무 놀라 많이 혼냈는데, 혼내면서도 이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

의 시선과 **의 어머니 눈치가 보였다. 괜히 꺼림직하여 아이가 하원할 때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라고 내가 아이를 조금 엄하게 혼냈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나의 행동에 "선생님, 우리 **이 말 안 들으면 혼내주세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아이를 혼내고 나서도 어머니께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한다. 일하기 싫다.

(양교사 저널, 2015. 7. 20)

이처럼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 하며,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육조치 허용하지 않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학부모로 인한 문제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훈육과 학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만큼 정부가 처벌, 훈육, 학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다.

3.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보육교사들은 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약 복용을 통한 해소,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 취미생활이나 혼자만의 시간 갖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로 해소, 하루를 기록하고 나의 감정 되돌아보며 반성하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 복용을 통한 해소

보육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신체적인 반응이 보였다. 공통적으로 교사들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스트레스 증상을 빠르게 억제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두통약이나 소화제를 교실에 구비해 놓기도 했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교사도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몸이 먼저 반응해요.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되거나... 그래서 늘 비상약을 가지고 다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료 선생님들 중에도 저처럼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사들끼리 서로 약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해요. 월차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겨요. 가끔은 배에 가스가 차면서 소화도 안되고.. 예전에 신경정신과에 1년 동안 다니면서 약물치료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 약물치료를 하면 잠깐은 괜찮지만 그래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효과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저는 잘 체해요. 원래 소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일하면서 밥을 빨리 먹거나, 무언가를 급하게 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교사가 빠르게 움직여야 아이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관리를 좀 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밥을 조금만 먹고 말아요.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7)

조퇴를 하거나 병원에 바로 갈 수 없으니 진통제 같은 약을 먹는 편이에요. 사실 병원 간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어쨌든 다른 선생님이 그 자리를 대신 해야 하니까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냥

심한 것 아니면 약 먹고 말아요. 아플 땐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몸이 아파도 조퇴를 하거나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 했다. 자신의 부재로 인해 다른 교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미안함으로 눈치가 보인다고 하며, 결국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점심시간조차 아이들의 급식지도를 위해 제대로 된 휴식을 갖기 못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일정한 휴식시간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필요시에는 조퇴나 월차 제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음주를 하며 해소한다고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단순히 화가 난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달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습관적인 음주를 하게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 했다.

먹는 것으로 풀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같아요.

(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7)

단 음식을 먹으면서 해소해요. 최근 들어 초콜릿, 캐러멜 같은 단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니 정

말 단 것들이 당기더라고요.

(최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14)

저는 퇴근하고 맥주를 마시거나 많이 먹는 편이에요.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맥주 한 잔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좀 습관적으로 맥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거의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나에게 대한 보상 같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들 만나서 먹거나..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3)

이처럼 교사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보상과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이와 같은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3) 취미생활, 혼자만의 시간 갖기

일부 교사들은 취미생활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원래 스트레스를 정말 잘 받는 편인데, 다른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죠. 저는 쿠키 굽는 걸 좋아해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힘들게 퇴근해도 몇 시간 동안 쿠키를 굽거

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잠깐이라도 잊혀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저는 경력이 10년 정도 있는데, 운동도 거의 10년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재즈댄스를 배우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풀기도 하고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8)

유 교사는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분을 동료교사들과 서로 나누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혼자 해결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특히 50대이지만 아직 미혼이라 생활이 자유롭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받으면 전에는 잤어요, 근데 요즘엔 나이가 들면서 여행을 가요. 기차 여행 같은거... 결혼을 안 해서 시간이 자유롭거든요. 어쨌든 나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동료교사라도 하지만 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서 풀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는 거죠.

(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28)

또한 최교사와 신교사는 직업의 특성상 어린이집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숙면을 취하며 몸의 긴장과 피로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잠을 통해 힘들었던 기억들을 조금이나마 잊고자 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자요. 영아반 아이들과 지내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요. 자는 게 제일이죠.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힘들었던 것들이 좀 풀리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 낮잠 시간에 교사도 온전히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최교사와의 전화상담, 2015. 8. 15)

자는 게 최고예요. 자는 동안에는 짜증나거나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 안 나잖아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깊이 잠을 못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잠이 최고예요.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14)

이처럼 교사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방식마저도 과도한 업무나 원 내 행사로 인해 주말에도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호소하며, 현장에서의 쉼 공간과 쉼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4)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로 해소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들을 외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교사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교사나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대화 하는 것이 좋아요. 원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동료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공감도 얻으면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외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깐요...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7)

한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 가족같이 가까운 동료가 한 명 있어요. 다른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동료들과 스트레스를 풀 때에는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것들이라 서로 공감도 되거든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교사들은 서로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공감대를 얻고자 했다. 또한 대화는 상대에게 이해 받으며 스트레스를 억제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성격이 다른 교사들이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연령대도 비슷하고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죠.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좀 진정 되요.

(안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3)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 하면 많이 풀리죠. 선생님들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상황을 어떤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너무 과민반응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백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8)

이처럼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흥분된 상태가 되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비슷한 연령대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교사와의 대화는 화가 나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억제시켜주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5) 하루를 기록하고, 나의 감정 되돌아보기

이교사와 신교사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반성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나 힘들었던 상황,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상황을 짚막하게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힘든 감정이나 노력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요. "그때 왜 그랬지?", "뭐가 문제였던거지?" 하면서요. 어쨌든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해요.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이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7)

어린이집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하루 일과가 굉장히 따분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있었던 작은 일들, 뭐 학부모님에게 기분 나빴던 일,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던 일들을 그냥 다이어리에 적어놓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리기도 해요. 다이어리가 매 년 쌓이면 또 그만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생각하면서 부듯하기도 하고..

(신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8. 14)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양교사와 강교사의 경우 가끔은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상황들에 대해 해결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더 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매번 같은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냥 무시하기도 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일 때도 있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계속 생각해봤자 해결 되는 건 없으니까요.

(양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17)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는 속으로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주변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라고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도 최대한 잊어보려 노력해요.

(강교사와의 심층면담, 2015. 7. 28)

이처럼 자신의 속상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되돌아보거나 스트레스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교사도 있는 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문제들은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무시해버리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교사도 있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근무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는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들이 근무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는 근무환경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원 내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사회적 인식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근무환경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 행정업무와 교실 및 화장실 청소, 식사준비, 차량지도 등 하루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본연의 업무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호소하며 다방면으로 만능이어야 점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업무 과부하 요인이 보육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발표한 연구결과(김정자,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혼자 돌봐야 하는 영유아의 인원이 많은 부분을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교사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 최선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원아들과의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법정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평가인증제도와 지도점검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하며,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을 감시하는 의미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했다. 교사들의 환경 요인에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는 낮은 보수로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 교사들은 평균 10~12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만 그에 따른 보수가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경력이 높아져도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화되는 부분으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보육교사의 노동 강도를 생각하여 급여수준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진미(2014)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경제적 요인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는데, 보육교사의 보수가 업무와 책임에 상응하지 못하거나, 타 직종의 사람보다 보수가 적다고 생각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전문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충족할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와 같은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한 축이고, 보육교사의 보수를 체계적인 호봉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당을 통일화하여 모든 보육교사들이 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경력이 많거나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며, 동료교사들에게 쓴 소리도 하고, 격려도 해주며 긍정

적인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교육방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이 다른 교사들에게 낮게 평가되거나 무시 받는 경우 갈등상황이 일어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동료관계 갈등에 관한 최미미(2012)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가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가치관 및 교육관의 차이, 비지원적인 동료교사, 경력차이에 따른 위계질서의 구조화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원장과의 관계에서는 성격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전문적인 교사로 존중받길 원했고, 잘못된 행동은 솔직하게 훈계해주길 바라며 한편으로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해받기를 원했다. 또한 원장이 가진 교육철학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보육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원장-보육교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지영(2015)에서도 교사가 받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원장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으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장의 일방적인 지시나 직접적인 지도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유아의 발달사항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 부분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교사의 조언을 유아에 대한 저평가로 생각하며 반감을 표하거나 교사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체생활을 하며 쉽게 노출되는 전염병과 상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SNS가 활성화 되면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SNS로 하는 것이 일상화됨으로 인해 근무시간에도 영유아에 대한 요구사항을 SNS로 발송하여 수시로 확인해

야 하거나, 원의 특성상 학부모에게 핸드폰번호를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기본적인 보호나 욕구충족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송경섭(2007)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영아를 보육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쉽게 융화되지 않는 특수한 사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들은 학부모를 아이에 대해 잘못된 점이 발생되면 보육교사를 흠집 낼 수 있는 감시자로 보기 때문에 보육교사와 학부모와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와는 다르게 교사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의 의식으로 인해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긴밀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선영(201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가 직장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대한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가 두 번째로 높으며,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원장, 동료, 학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내 대인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연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요소는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비춰지는 보육교사, CCTV로 무너진 교사들의 자존심, 훈육과 학대의 불확실한 경계점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예로부터 유아교사의 일은 여성들의 일로 간주하며 전문적이거나 지적인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옳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증가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를 막을 최소한의 조치로 의무화된 CCTV 설치에 대해 교사들은 늘 감시받는 느낌으로 긴장하며 근무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며,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작은 행동에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학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유아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된 훈육조치 불만을 갖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영유아의 잘못된 행동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부모가 사소한 일에도 의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사회적 여론으로 인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김미숙(201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에 의해 폭력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가해 원장 및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선량한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존중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약 복용을 통한 해소,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 취미생활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 갖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하루를 기록하고 나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증상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는 약 복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진정시켰다. 또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음식 섭취나 폭식으로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잠을 자는 방법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동료교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또한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기록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반성을 하거나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해결하기 위해 그 때의 감정을 되돌아보려 노력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원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며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이진미(2014)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통하여 대처하는 인간관계적 대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약을 복용하거나 스포츠 활동, 운동, 인터넷, 게임, 음악 감상, 영화, 쇼핑, 등산, 독서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취미활동 대처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인간관계적 대처와 취미활동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보육의 질과 어린이집 조직의 건강에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가 올바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정신건강증진 교육과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를 단순히 제거하려 하기 보다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탄성력과 회복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근무환경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 방식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를 연령, 학력, 경력, 기관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시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교사들이 직무환경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자(2012). 보육교사의 역할스트레스가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경(2002).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성자(2011). 보육교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동순(1999). 유치원 교사의 갈등대상에 따른 갈등해결 유형.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순신(2001). **교사론**. 서울: 학지사.
- 김경면(2005).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들맘, 신혜영(2000).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53-276.
- 김상희(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개선을 위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림(2010).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강인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2006).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실태조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2014).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어린이집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 정정훈, 이영민(2006). **한국초임교사의 일 년 생활 미운 오리새끼**. 서울: 문음사.
- 김영희(2013). 보육교사의 자존감과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0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2015).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2007). 어린이집 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201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 이장호(1987).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 김지영(2015). 원장과의 관계, 원장과의 의사소통 및 어린이집 유형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2005). 보육교사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12). 업무환경과 정서노동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7). 경기·강원 지역 유아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규(1998).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현상 및 사회현상 관련

-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경제현상과 정치현상 및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인간의 상호 영향관계. **인하교육연구**, 4, 17-46.
- 도명애(2010). 유아교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명준희(2006).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 전문성 인식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 유화숙(2003).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1(6), 167-183.
- 박은혜(2009).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상언, 김민용(2006). 직무요구와 직무소진 그리고 조직공정성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5(2), 367-388.
- 박삼섭(2007).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은(201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보육시설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자(2010).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안 분석.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미(199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영란(1999).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정선(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숙(201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근복(2009). 보육교사 근무환경이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충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 서의석(2006). 보육교사 근무현황 및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주리(201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만족 결정요인 연구.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섭(2007).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생활문화 탐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주(2010). 영아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분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2009). 청소년의 부정적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미정(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영유아 담당연령에 따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애희(2003). **보육의 이해와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창지사
- 윤혜미, 권혜영(200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한국생활과 학회지**, 12(3)
- 이미정, 강란혜(2010).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실태 개선을 위한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27~44.
- 이병해(2015).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 **유아교사론**. 양서원
- 이상혁(2000).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 연구.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13). 어린이집교사의 이직 및 퇴직 배경 탐색.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미(201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숙(2004).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순(2012).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아(1996).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행숙(2012). 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철(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진영(2013).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최금란(201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주시 민간보육시설 중심으로
- 최미미(2012).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련(2000).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2012).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형(2009).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유아교육 기관장의 대인관계 스트

- 레스 대처방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www.kostat.go.kr
- 한선영(2013).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형근혜(2006).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순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석영(2012). 어린이집교사의 지구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1(2), 271-272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 Lazarus, R. S. & Opton, E. m., Jr., (1966), The study of psychological stress: A summary of theoretical formulation and experimental findings.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 Y : McGraw-Hill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d by Child Care Teacher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concrete reality of the stress experienced by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day care centers, and how they cope with it. Under the aforementioned purpose, this Study discu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types of stress do child-care teachers experience ?

Second, how do child-care teachers cope with the stres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10 child-care teachers with two or more years of experienc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29, 2015 to August 24 of the same year, during which the participant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nd instructed to write journals.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two or three times with each session taking approximately 60 minutes, and additional interviews or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required. The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write journals as much and as often as they would like, which were collected by email. All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to collect the data, and the recordings were transcribed and then classified and categorized f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garding the questions abo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the types of stress experienced by child care teachers while working at day care centers, the stress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tress caused by their working environments, stress experienced in 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ir day care centers, and stress caused by the society's perception on child care teachers.

A further look into the stress experienced by child care teachers in their working environments, the teachers were experiencing stress caused by the demand to become an all-round teacher, an excessive number of children for a single teacher to care, harsh evaluation and inspection procedures, and low wages compared with the workload. In other words, the teachers were experiencing stress from having to carry out various works outside their proper work as teachers - such as cleaning, preparing meals, guiding vehicles, paper works for evaluation, etc. -, while earning wages which is fairly low compared with the high workload imposed on them. The high number of children allotted to a single teacher was another major source of stress, and the frequent evaluations and inspections were causing further stress for the teachers.

The stress experienced in the teachers' 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child-care center was further broken into three sub-categories: stress caused by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the stress caused b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s, and the stress caused b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With regard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the interviewees experienced stress caused by their sacrifice and conflict associated with their role as experienced teacher and mediator, as well as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 As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s of the child-care centers, the teachers experienced stress when a principal does not respect them, blames the teachers for the principal's mistakes; or demand that the teachers unconditionally follow his/her educational principl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of their students, the interviewees experienced stress when a parent does not trust them or is not honest with them; is sensitive about contagious diseases or injury; refuses to take the teachers' advice; scandalizes the teacher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or makes unreasonable demands.

As for the stress caused by the Society's perception, the teachers were experiencing stress from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society that views all child-care teachers as potential child abusers, bolstered by the recent increase of child abuse incidents at day care centers; decreased self-esteem caused by the mandatory CCTV monitoring recently introduced, and the unclear distinction between disciplining and abusing a

child.

Secondly, as for the ways in which child-care teachers cope with their stress, the interviewees the following copin strategies: stress relief through medication; eating spicy foods; engaging in their hobbies; having a deep sleep; having some time alone; talking with the people who can relate to the stress; and looking back to and reflecting on what happened each day. Medication and spicy foods were strategies chosen to swiftly suppress their stress.